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 24일 동안 불교계는 대화와 중재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9일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에 임박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에 들어갔고(사진 왼쪽), 이를 받아들이는 경찰은 영장 집행을 연기했다. 한 위원장도 불교계의 설득에 자신 출두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조계종과 조계사 대중의 보호 아래 일주문을 나섰다.(사진 오른쪽)



허위 기부금 영수증 남발 사찰·불교 단체가 '最多'

국세청 공개 63곳 단체 중 50곳이 불교 단체

소득공제용 기부금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63곳의 명단이 지난 12월 3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됐다. 소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들이다. 이들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2014년 귀속 소득공제용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대로 작성·보관하지 않은 63개 단체다. 종교단체가 95%(60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단체 1곳, 문화단체 1곳, 기타 1곳이다. 이중 사찰이

신고는 종교단체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주나 공합을 바꾸는, 이른바 '철학관'에 가까운 단체도 문제다. A종교단체 대표는 주로 연발 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들로부터 약 2~3%의 수수료를 받고 수백건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다 적발됐다. 주책가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던 B종교단체는 다른 종교단체의 기부금 영수증을 입수한 뒤 고유번호와 도장을 도용해 신도들에게 수 억원어치 영수증을 나눠줬다.

“사찰 재정 투명화는 기부 활성화에 도움돼”

국세청이 이처럼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 명단공개라는 첩보를 내린 것은 기부금 단체의 불투명한 운영이 자칫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에서다. 실제, 경상북도 김천의 A사찰의 경우 137건의 거짓 영수증으로 총 5억 8백만원 어치의 영수증을 발행했다. 전라남도에도 있는 B사찰 역시 161건의 가짜 영수증을 남발했다. 총 3억 5천여만원이 넘는 액수다.

국세청은 이 중 4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추징키로 했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제출한 서류에 근거해 작성했다”며 “단체명서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했지만 그 종단 소속단체가 아니라 이름만 붙여놓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종단 차원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하지 말 것을 공문이나 지침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며 “투명하게 사찰을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기부금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주필 기자 kimji217@hyunbul.com

“대화로 해결” 약속... ‘화쟁 정신’ 빛났다

조계종, 10일 한상균 위원장 자진 출두 이끌어내

조계종과 조계사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자진출두를 ‘화쟁 정신’으로 이끌어 냈다. 조계종과 조계사는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시점에, 또 12.5 2차민중결기대회에서도 “대화 타협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과 인고의 시간 끝에 ‘공권력 투입’이란 초유의 사태를 막아내고, 한 위원장은 조계사 일주문을 나서 자진 퇴거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12월 10일 조계사 은거 24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그간 한 위원장은 “노동악법을 막아내기 전 조계사를 나갈 수 없다”고 퇴거를 거부했으나, 경찰의 조계사 투입이 임박한 시점에 자진퇴거를 결심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조계종의 중재가 난관에 봉착한 때도 있었으나 민주노총과 경찰을 끝없이 설득하며 ‘화쟁 정신’으로 극복한 점을 호평했다.

12월 9일 한국불교 조계종의 총본산인 조계사는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에 침탈될 위기에 처했다. 8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24시간 후인 9일 오후 4시 체포영장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조계사 일대에 경력 약 1000명과 사복경찰 약 100명을 배치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 스님들 20여 명과 종무원 200여 명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며 관음전 출입구 앞을 막아서며 충돌이 빚어졌다.

‘정교(政敎) 충돌’의 일촉즉발의 사태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오후 5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급반전했다. 자승 스님은 “더 이상 갈

등은 종단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내일 정오까지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이에 경찰과 민주노총은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종단의 노력을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내 공권력 투입으로 비롯될 후폭풍의 부담을 안고 있던 경찰도 한 발짝 물러섰다. 경찰은 “자승 스님 제안을 받아

12.5 결기대회 평화 진행 유도

한 위원장 퇴거 거부 계속 설득

9일 경찰 진입, 충돌 이어지자

자승 스님 나서 “거취 결정” 중재

일촉즉발 상황서도 대화로 풀이

들어 체포 영장 집행을 10일 정오까지 연기할 것”이라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종단은 그동안 한 위원장 사태 중재와 관련 해선 화쟁위원회에 일임해 왔다. 화쟁위가 종단안팎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기구일 뿐만 아니라 종단은 정치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단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조계종의 수장인 자승 스님이 직접 나서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스님의 한수”였다 “충돌 막은 절묘한 한수”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공권력 침탈 위기, 일촉즉발 ‘48시간’

8일 11:20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조계사 방문 “자진출두 안하면 영장집행 불가”

16:00 강신명 경찰청장 ‘24시간 최후 통첩’

9일 10:00 조계종, 첫 공식입장 표명 “경찰 투입시 정부에 책임 물을 것”

14:00 경력 1100여 명 조계사 일대 배치 종무원 및 스님 2백여 명 맞대응

15:10 경찰, 관음전 진입 시도 ‘몸싸움’

17:00 총무원장 자승 스님, 긴급기자회견 “내일 정오까지 시간 달라”

17:40 경찰, 자승 스님 제안 수락

10일 11:20 한상균 위원장 자진 출두

특히, 화쟁위는 12.5민중결기대회의 평화적 성사에 일조하며 ‘평화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았다. 화쟁위는 한 위원장의 중재요청을 받아 12.5결기대회의 평화적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평화의 꽃길 기도회’를 개최했다.

합동 평화 기도회를 마친 스님들과 불교계 단체들은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시장 광장, 광화문로 일대를 행진했다. 차벽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의 꽃길이 놓였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과 시위 참여자들도 고마움을 표했다.

임은영(45, 은평구) 씨는 “민중결기대회에 참여하려 왔다가 스님들의 행진을 보고 기도회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종교인들의 평화적 중재는 한국 시위 문화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 문호는 차별도 없다. 이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박이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관련 기사 3면〉

진제 스님, 연말 맞이 자비행 ‘귀감’

12월 9일 아름다운 동행 통해 1천만원 쾌척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사진)이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불우이웃 성금을 쾌척하는 자비행을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진제 스님은 12월 9일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 나눔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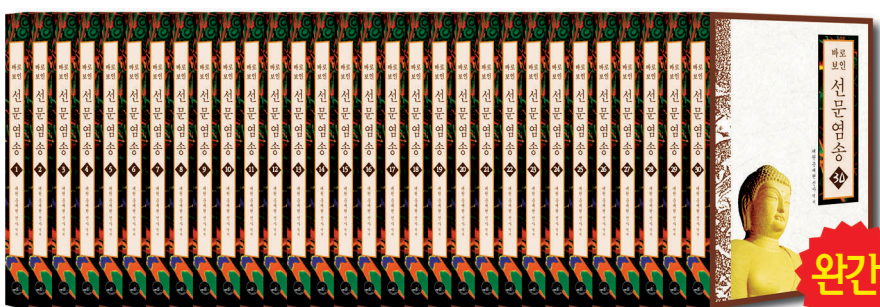
기금 전달에 대해 진제 스님은 “‘천지여아동근(天地與我同根)’이요, ‘만물여아동체(萬物與我同體)’라 천지가 나와 더불어서 한 뿌리요, 모든 존재가 나와 더불어서 한 몸이라, 법계가 서로 연기되어 있기에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며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심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을 볼 때 서로가 자기의 모습이라 생각하여 나누고 기부하는 마음으로 화합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따뜻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제 스님은 2011년 이후 해마다 부처님오신날과 연말에 자비나눔 기금을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중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생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서 - 74권 36종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삼아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찻는 희다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운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바로보인 법성계 / 달다 / 기우몽동가 / 초발심자경문 / 방거사어록
실증설 /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 불조정책 3개국어판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108진참회문 3개국어판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회두 3개국어판 / 바로보인 간당론 /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바로보인 유마경 / 실증설 5개국어판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3개국어판